

순수한 시각의 회화, 의미 이전의 풍경 김리아갤러리, 황도유 개인전 《에덴의 동쪽》 개최

- 동물과 풍경을 통해 확장된 순수한 시각적 평면
- 생존과 순환, 긴장과 공존이 교차하는 화면
- '미완의 표현성'을 바탕으로 회화의 본질을 탐색



황도유 개인전 《에덴의 동쪽》 전시 알림 포스터

김리아갤러리는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황도유 개인전 《에덴의 동쪽》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회화적 언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한 신작 연작을 선보인다.

화면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특정한 서사나 상징을 전달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먹이를 쫓고, 몸을 숨기고, 서로를 응시하는 움직임은 긴장과 균형을 만들어내며, 각각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머무르면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한다. 이번 전시의 중심은 자연의 질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만들어내는 화면의 흐름을 탐구하는 데 있다.

《에덴의 동쪽》은 이전 연작 〈서른세송이〉에서 이어져 온 회화적 탐구의 연장선에 있다. 정적인 꽃을 중심으로 구성했던 작업은 보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지닌 동물들로 확장되며 회화의 시간성과 관계성을 더욱 깊이 탐색한다. 황도유는 회화를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색과 획의 흐름이 화면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치밀한 재현이 아니라 손이 남기는 흔적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완의 감각이다. 작가가 말하는 '미완의 표현성'은 미완성의 상태가 아닌, 회화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 방식이다. 화면은 의도적으로 닫히지 않은 채 남겨지고, 그 여백은 붓질의 결과와 물질감, 그리고 보는 이의 감각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된다.

전시 제목은 소설 『에덴의 동쪽』에서 차용했지만, 원작의 서사를 옮기거나 해석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작가는 제목이 지닌 긴장감과 울림을 빌려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관계를 맺고 변화하는 풍경을 펼쳐 보인다. 감상자는 화면을 하나의 서사로 읽기보다 오래 응시하며, 동물들의 움직임과 붓질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 시간 속에서 화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로 열리고, 관람자는 저마다의 시선과 감각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타이틀: 《에덴의 동쪽 (East of Eden)》

전시기간: 2026.8.19 (목) - 2026.9.19(토) 11:00AM – 6:00PM (일,월 휴무)

아티스트: 황도유 (b.1987)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Chungdamdong 100-31)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https://www.kimreeaa.com/>

문의: 김세정 Se Jung Kim / 02-517-7713 / sejung@kimreeaa.com

이송현 Songhyun Lee / 02-517-7713 / songhyun@kimreeaa.com



황도유는 회화적 표현에 깊이 몰두하고 연구하는 예술가로, 섬세한 붓질을 통해 캔버스에 그려지는 그의 작품들은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표현된다. 황도유 작가는 아름다운 색감과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획으로 낯설고 신비로운 예술적 경험을 관객에 선사한다.

황도유는 1987년 생으로 계원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활발한 전시 활동과 협업을 이어오며 탄탄한 컬렉터 층을 구축해왔다. 작가는 획의 겹침을 최소화한 절제된 붓질을 통해, 최초의 흔적부터 마지막 획까지 화면 위에 남겨진 모든 과정을 온전히 드러낸다. 감정과 기억을 최대한 배제한 채 오직 하나의 획, 그 색과 질감에 집중하는 작가의 태도는 화면 위에 추상적인 풍경을 펼쳐내며 관객에게 신비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Hwang Do You is deeply devoted to and engaged in painterly expression, and his works, rendered through delicate brushwork, evoke landscapes that are both uncanny and beautiful. Hwang Do You offers viewers a mysterious and enchanting artistic experience through his refined use of color and concise yet powerful strokes.

Born in 1987, he graduated from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and has built a strong collector base through active exhibitions and collaborative projects. Through restrained brushwork that minimizes overlapping strokes, Hwang fully reveals the entire process on the canvas, from the first mark to the final stroke. By deliberately excluding emotion and memory, he focuses solely on the individual stroke—its color, texture, and presence—unfolding abstract landscapes that evoke a sense of wonder in the viewer.

이러한 작업 방식은 연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서른세송이〉에서도 이어진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몽환적인 풍경 속에 앨리스가 존재할 법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서른세송이〉에서는 손의 불안정한 기능을 회화적 매력으로 전환해 미완의 미감을 강조한다. 이처럼 황도유는 획과 흔적, 기억과 풍경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한다.

이번 신작 〈에덴의 동쪽〉은 동명의 소설이나 영화에서 차용했으나, 그 서사를 따르지 않는다. 특정 내러티브를 전달하기보다는 작품이 지닌 상징성과 감각적 여운에 주목하며, 명제가 환기하는 정서와 분위기 속에서 관람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느낄 수 있다.

This approach continues in his series *Alice in Wonderland* and *The Thirty-three Flower Blossoms*. In *Alice in Wonderland*, he creates an atmosphere in which Alice might exist within dreamlike landscapes, while in *The Thirty-three Flower Blossoms*, the imperfect movements of the hand are transformed into a painterly charm, emphasizing the aesthetic of incompleteness. In this way, Hwang Do You establishes a distinctive painterly world at the intersection of stroke and trace, memory and landscape.

His latest work, *East of Eden*, borrows its title from the eponymous novel and film but does not follow their narrative. Rather than conveying a specific story, the work emphasizes symbolic resonance and sensory aftereffects, allowing viewers to interpret its meaning individually through the emotions and atmosphere evoked by the piece.



Hwang Do You
East of Eden (2026)

acrylic on canvas
193.9 × 130.3 cm



Hwang Do You
East of Eden (2026)

acrylic on canvas
193.9 × 130.3 cm



Hwang Do You
East of Eden (2026)

acrylic on canvas
60.6 × 72.7 cm



Hwang Do You
East of Eden (2024)

acrylic on canvas
45.5 × 45.5 cm



Hwang Do You
East of Eden (2026)

acrylic on canvas
53 × 40.9 cm

